

얀바루의 역사와 문화

얀바루에는 이미 기원전 수세기 전부터 사람들이 거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14 세기까지 얀바루는 오키나와 본섬을 지배하는 3 개의 왕국 중 하나였던 호쿠잔 왕국의 일부였습니다. 호쿠잔 왕국은 1416 년에 남쪽 주잔 왕국 군대에게 함락되었습니다. 주잔 왕국은 3 개의 왕국을 통합하고 류큐 왕국을 세웠고 1429 년부터 이어져 내려온 류큐 왕국은 1879 년 일본 메이지 정부에 의해 해체되어 오키나와현이 되었습니다.

자연환경과 연계된 사람들

역사적으로 얀바루 사람들은 지역의 산림을 적극적으로 보수하고 관리하여 필요한 자원을 산림에서 얻어 왔습니다. 류큐 왕국 시대부터 얀바루는 섬 안에 숲, 장작, 건축 자재를 공급했습니다. 얀바루의 전통적인 범선으로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임산물과 교환한 생활 필수품을 얀바루로 가져갔습니다. 마을 주변의 특정 지역에서는 멧돼지의 침입을 막기 위해 몇 백년 전에 건축된 돌담이 있습니다.

류큐의 신앙 세계

류큐의 전통적 신앙은 바다와 산이 일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. ‘우타키’라고 알려진 신성한 장소는 바위, 숲 속 나무, 또는 산 전체로 구성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. 우타키는 류큐의 신들이 방문하여 선조의 신들을 섬기는 장소입니다. 그곳에는 지역 의식이 행해지고 많은 참배자들이 지금도 그 장소를 지역을 수호하는 성역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. 류큐 왕국의 행정 시스템 아래, 노로라고 불리는 여성들은 각 마을에서 무녀로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. 노로는 신과 교신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자연의 은혜에 감사하고 악령을 물리치고 풍작과 풍어를 기원하는 전통 축제인 마쓰리를 섬깁니다. 가장 중요한 행사가 지금도 한여름에 열리며, 이 마쓰리에서는 산의 신에게 풍작을, 바다의 신에게 풍어를 기원합니다. 일부 마쓰리는 중요무형민속문화재에 지정되어 있습니다.

얀바루의 지역사회

얀바루의 지역사회 배치 및 환경은 천연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고 전통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는 류큐의 습관을 반영합니다. 마을은 원래 강 주변에 형성되었고 농업과 숲 제조 등의 활동을 지정하고 깊은 바닷속 산호초에서 어패류와 해초가 공급됩니다. 현재 얀바루는 10,000 명이 안 되는 주민이 3 개 마을에 나뉘어 살고 있습니다.